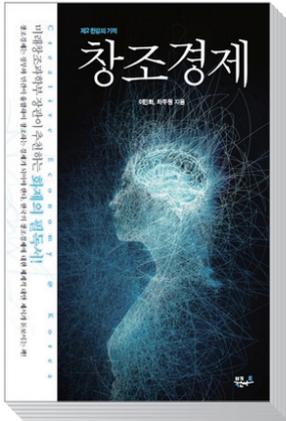


크리에이티브 리뷰

7월의 크리에이티브 리뷰에서는 창조산업과 관련된 책, 보고서, 논문을 소개한다.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창조산업 관련 정책과 성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는 우리나라 창조경제와 연결고리를 찾아보기 바란다.

Creative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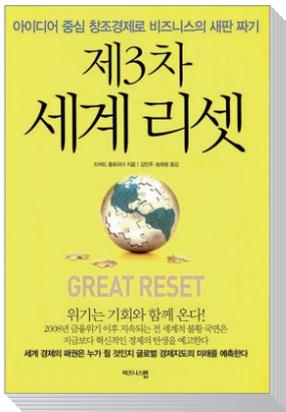
| 박현아 (KOCCA 미래전략팀 주임연구원) |



제 2 한강의 기적 창조경제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한다. 이 책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정체성 혼란 과정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국가 비전으로 탄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책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한국의 창조경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진화단계를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국이 주로 문화산업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한국은 국가전체의 경제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창조경제에서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심이 지식재산권(IP)과 고객관계(CR)로 이동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창조원가 정의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창조경제 패러독스는 개별 기업의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경쟁으로 이전되는 초협력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저자들은 창조경제의 경쟁방정식으로부터 '경제민주화' 등 8가지 창조경제의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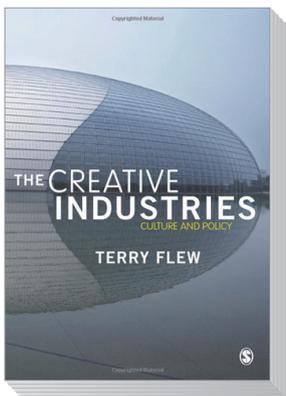
●저자 : 이민화, 차두원 ●출판사 : 북콘서트 ●출간일 : 2013.06.10



제3차 세계 리셋: 아이디어 중심 창조경제로 비즈니스의 새 판 짜기

세계 경제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대중지식인으로서 인구변화 동향과 문화 및 기술혁신을 이끄는 주요 인물인 리처드 플로리다의 <그레이트 리셋>개정판인 <제3차 세계 리셋>이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사이클의 일부라는 주장 하에,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는 위기를 통하여 재탄생하고, 위기를 거칠 때마다 더 새롭고, 더 강해지며 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추게 된다. 이 책은 이번 위기를 통해 밝은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나아갈 방법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엄격한 연구 분석 결과에 특유의 위트와 솔직한 화법을 덧붙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면서도 이성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 : 리처드 플로리다 저/김민주, 송희령 공역 ●출판사 : 비즈니스 맵 ●출간일 : 2011.12.28



창조산업: 문화와 정책

The Creative Industries: Culture and Policy

창조산업의 부상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문화 연구, 미디어와 문화 정책, 그리고 예술과 정보 분야에서 새로운 사고를 요한다. 이 책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문화분야의 시장, 창의적 노동, 금융과 리스크, 그리고 문화가 뉴미디어 기술을 통해 어떻게 분배되고 판매되며 창의적으로 재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 책은 미디어와 문화 연구, 혁신 경제, 문화 정책 연구, 그리고 경제와 문화 지리학의 논의를 끌어오고, 문화와 창의성이 경제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했을 때 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봄,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에 대한 글로벌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 : Terry Flew ●출판사 : SAGE Publications Ltd ●출간일 : 2011.12.06

Creative Reports



문화부문 업무계획을 위한 2011-2014년 유럽지역 아젠다

European Agenda for Culture Work Plan for Culture 2011-2014

이 정책 핸드북의 목표는 지역과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문화 공동체에 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와 창조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 핸드북은 그들이 문화와 창조산업에 대한 지역 및 국가 전략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또한,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한 문화적 잠재성을 발굴하고 더 넓은 경제 영역에 대하여 스피로버 효과를 주기 위하여 EU의 지원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이용계획과 적용에 대한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타겟 그룹은 문화적이거나 경제적인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EU의 구조적 펀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 혹은 국가적 레벨의 정책담당자들이다.

●저자 : EU ●출간일 : 20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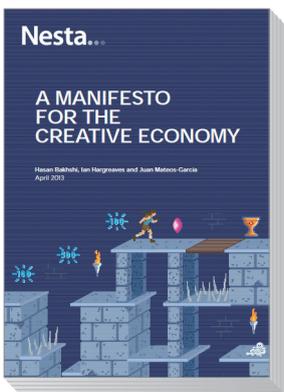


창조산업 이해하기

Understanding Creative Industries

최근 창조산업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경제학자, 통계학자, 문화 분야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은 창조산업이 갖는 경제적 잠재성과 문화 다양성 육성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공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창조 산업 개념은 아직 신생 개념으로, 모든 국가의 정부가 특정한 제도와 함께 이 분야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UNESCO는 문화 분야에서 세계 유일의 범정부적 조직으로서 전문화된 통계센터(UIS)를 통해 창조산업 육성에 착수한 국가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최선의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저자 : UNESCO ●출간일 : 1999.05



창조경제를 위한 선언

A Manifesto for the Creative Economy

영국의 창조경제는 국가적 감점 중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전체 경제의 1/10을 차지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국 창조경제는 여전히 디지털 기술과 연관된 수많은 분열과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또한, 영국 정책입안자들은 북미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했다. 이 선언은 정책 수정이 긴급한 열 개 분야를 제시한다. 상위에 있는 우선 순위로는: 다음세대 인터넷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 모든 10대들이 창의적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정책 도구들이 창조 경제의 필요에 맞출 것 등이다.

●저자 : Hasan Bakhshi, Ian Hargreaves and Juan Mateos-Garcia ●출간일 : 2013.04

Creative Articles



창조생태계: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개발과 적용

Creative Ecologies: Developing and Managing New Concepts of Creative Economy

오늘날 창의성에 대한 생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된다. 분야는 경제, 기술, 과학 등의 분야들을 포함한다. 이 논문은 경제학자인 존 호킨스가 발전시킨 창조 경제 이론에서부터 나타난 창조 생태계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존 호킨스에 따르면, 자연 환경과 경제가 현재 처한 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창의성과 통제력의 균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연구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창조성과 지속가능한 창작 과정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무엇인가 2) 어떻게 인간이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키우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가 3) 무분별한 소비 사회가 창의적인 상품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 저자 : Jelena Stankeviciene, Rasa Levickaite, Monika Braskute, Elinga Noreikaite
- 저널명 : Business, Management and Education ●게재일 : 2011.07



창조산업의 혁신 : 쿼드러플 헬릭스모델에서 시스템이론까지

Innovation in Creative Industries: from the Quadruple Helix Model to the Systems Theory

지식과 창의성은 언제나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00년대 이후 창조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혁신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것은 공급에서 수요 측면으로 연구 초점이 이동하기 때문이다(소비 주도형 경제). 저자들은 경영과 미디어 연구에서 혁신과 지식 생산과 이용의 패러다임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과 시스템 이론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흥미로운 사례연구로서, 호주 창조적 기업이 이론적 접근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 저자 : Cinzia Colapinto, Colin Porlezza ●저널명 : Journal of the Knowledge Economy ●게재일 : 2012.12
- 게재일 : 2008.09



선진국의 창조산업 발전 경험과 깨달음

Experiences of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in Developed Countries and Enlightenment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의 창조산업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며 비교적 진보된 편에 속한다. 영국은 처음으로 '창조산업' 개념을 도입한 국가이고, 미국은 창조산업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이며, 독일은 가장 매력적인 창조산업을 육성한 나라이다. 중국은 이런 선진국에 비해 창조산업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저자들은 중국의 창조산업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1) 국가 전략 레벨에서 창조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지해야 한다 2) 창조산업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재능이다 3) 자금 지원, 세금 혜택, 투자, 파이낸싱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4)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라 5) 우수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사슬의 통합을 촉진하라 6)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화에 주력하라.

- 저자 : Hongman Zhang, Jing Wang, Di, Liu ●저널명 : Asian Social Science ●게재일 : 20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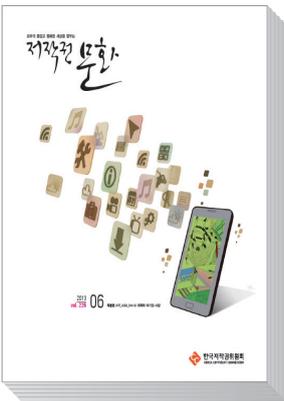
Creative Magazines



웹진 문화관광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달의 이슈, 집중분석, 국내외 사례, 현장 소식, 실태 조사 등을 전하는 웹진이다. 이번 6월호의 이달의 이슈로는 우리에게 '문화유산'이란?, 송례문의 사례로 본 문화재 복원의 의미, 콘텐츠산업의 창조적 원천 고유문화, 문화유산과 관광 공생의 길을 묻다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집중분석에서는 문화재 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한 문화재 관리자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국내외 사례로는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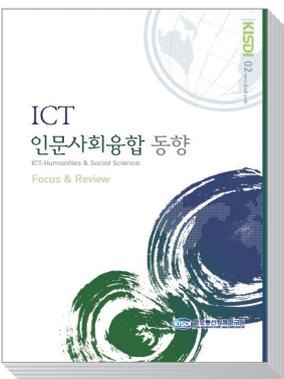
● 발행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저작권 문화

저작권에 대한 정보 및 최근의 이슈, 관련 기고문 등을 싣고 있는 월간 소식지로, 저작권 세상만사, 저작권 산책 등 즐겁게 만나는 저작권 이야기, 기획특집, 지구촌 저작권, 사건과 판례 등 언제, 어디에서나 생활 속 저작권, 특별 인터뷰, 위원회 뉴스, 독자 편지 등 위원회와 독자의 소통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6월호에서는 모바일 맵상의 저작권 침해가 어느 부분까지 보호받는지 살펴보고, 논문 복제의 사건과 판례를 알아보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저작권 정책관을 특별 인터뷰하며 저작권 문화의 이슈와 동향을 다방면에서 전하고 있다.

●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ICT와 인문사회융합연구에 필요한 기초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ICT 인문사회 융합 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하는 발간지이다. ICT 와 인문사회과학 지식간의 융합 및 통섭과 연관된 국내외 트렌드, 이슈,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향보고서를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이번 5월 호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생성적 융합 모색, 온라인상의 민속지학 네트노그래피 등의 주제를 다루고 UCLA CDH의 Annelie Rugg센터장을 인터뷰했다.

● 발행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